

북한 기도 제목

1. 한반도의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미 회담 성사와 남북 정상회담 실시 등으로 한반도에 대화의 바람이 불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 변화로 고위급 회담이 무기한 연기되는 등 여전히 불안 요소가 남아있습니다. 평화 가운데서 북핵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각국 리더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각 국가의 국익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불협화음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해소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적 상황은 항상 요동 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통일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통일 자체가 무조건적인 축복이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큰 어려움과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복음적인 평화 통일을 위해서, 또 남과 북이 하나되어 열방을 섬기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반도에 통일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그 통일이 복음적인 가치가 구현되는 통일, 평화로운 통일,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통일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3.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한국 교회를 향해 한반도 복음화와 통일의 그날을 준비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재빠르게 움직이는 세상과 달리 교회 현장에서 북한이나 통일은 아직도 너무나 멀기만 합니다. 한국 교회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통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그리스도의 가치를 성취해가는 교회가 되도록 회개와 회복의 역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4. 특별히 6월은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간으로 지켜왔습니다. 올 6월은 한미 및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중요한 일정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와 한민족을 위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깨어 일어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빌리 기도 큰모임 등 교회의 연합과 기도하는 모임을 통해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고 통일의 비전이 나뉘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5.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외교적인 변화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북한 내의 통제와 박해는 여전합니다. 지금도 북녘의 형제, 자매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박해받는 북녘의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이 성장하며, 고단한 생활속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디오 복음 방송을 비롯해서 성경과 복음 서적 등 신앙 자료들이 계속해서 지원되고 또 생존을 위한 생활 지원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북한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때에 북한 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안전과 생활과 신앙을 위해 기도합니다.